

우리문화 더 깊이 맛보기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인 박정자씨가 불보살의 명호를 쉽게 설명한 불화 안내서를 펴냈다.

불보살 이름 아십니까

사람에 가면 많은 종류의 행화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이러한 불자들을 위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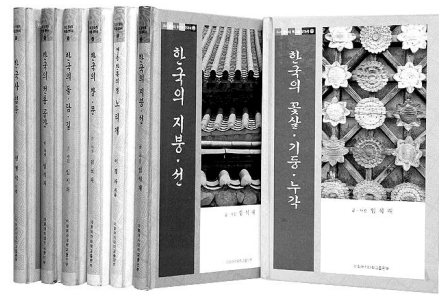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씨가 펴낸 이 책은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행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행화, 신종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행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인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칭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다. 박정자씨는 '행화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전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강신재 기자



신비한 불화의 세계 박정자 지음 광진문화사 3만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이화여자출판부 펴냄 | 전7권 | 각권1만2천원

각 대학 출판부들이 일반인들을 위한 시리즈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가 올컬러 한국문화 입문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를 선보이며 독자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2년간의 기획 기간을 거친 출판부는 2009년까지 총 50권을 펴낼 예정으로 최근 1차본 7권을 먼저 출간했다.

시리즈는 문학·건축·미술·역사 등의 큰 주제 아래 세부 주제가 다시 나누어져 있다. 문학에서는 탈춤과 민요 판소리 여성 문화 등을, 건축에서는 지방 꽃살 기둥 등을, 미술에서는 일반회화와 조각 도자공예 목공예 등을 배치는 형식이다. 집필은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가 맡았고 각 책은 영어본이 함께 발간된다.

출판부는 "지나치게 학술적인 경향이나 단순한 내서 수준을 지양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의 근간을 세부적으로 천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우리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적 전문성'을 띄게 했

다'고 밝혔다. '개방적 전문성'이란 각 분야를 세부적·전문적으로 짚어보면서도 작은 판형과 풍부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독자들이 보다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을 말한다. 출판부는 이러한 구성방식을 통해 현대 문명이 유발한 문제를 지유하는 대안이 우리문화의 본질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살피고자 하는 우리 문화의 근원에 불교가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 대부분은 불교에 닿아 있다. 건축과 미술, 문학 등 역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이대 출판부 2년간 기획 거쳐 2009년까지 50권 발간 계획 1차본 7권 전통건축 등 펴내

미치고 있는 불교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계기가 된다.

총론적인 1권 <한국사 입문>은 신형식 교수(상명대), 2권 <전통 한복의 멋 노리개>는 이경자 한국복식문화연구원장이 집필을 맡았다. 3~7권에서는 인식제 교수가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지붕·선, 꽃살, 기둥·누각, 창·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닌 사찰 지붕 선의 조형미뿐만 아니라 법당 문을 수놓고 있는 꽃살, 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기둥 등 각 분야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떼어내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도 눈에 띈다.

"꽃살과 공포로 대표되는 사찰 건축의 화려한 장



계단은 인간의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 외에 불교의 단계론적 인연이나 인생 여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진은 정국사 대웅전을 오르는 돌계단.

식은 공(空)사상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화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것들은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인 화엄의 개념을 상징한다"는 같은 사찰에 담긴 불교 사상을 읽는 임 교수의 폭 넓은 시각과 이해를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화여자출판부는 이 책들을 오는 10월에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이수영 기자 snoopy@buddhapia.com**

누가 진짜 미륵일까



우리 곁에 오신 미륵 광덕 스님 지음 | 해조음 | 9천6백원

익산 미륵사지와 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오늘날 전하는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는 미륵신앙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정치권의 학정 등으로 삶이 궁핍해질 때면 민심은 미륵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불국토를 일굴 것이라 기대했고, 이러한 기대심리에 부응하듯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미륵' 입을 자처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미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제 미륵은 어떤 뜻이고, 미륵신앙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구 정토사 주지 원통 스님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미륵 사상을 불경에 근거해 살펴보는 <우리 곁에 오신 미륵>을 펴냈다. 1975년 탄허 스님의 '개벽과 화엄사상' 강의를 듣고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이치가 무엇인지 의문을 느꼈다는 원통 스님은 5년 전부터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에 미륵불 사상이 담겨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스님은 책에서 '대승불교 경전에서의 여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미륵 부처님을 칭하는 것이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를 위해 대승불교 사상을 하나씩 짚어본 후, 미륵은 7단계에 걸쳐 완성된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 미륵이라 칭한 사람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바로잡고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미륵이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통과 만난 우리불교

우리불교 우리문화 김용덕 지음 | 밀알 | 2만원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 김용덕 교수(한양대)가 현대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 <우리불교 우리문화>를 펴냈다. <한국민속문화대전> <효봉선사 일대기> 등의 책을 펴낸 바 있는 김 교수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불교입문서를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편리하고 쉬운 것에 길들여진 현대인에게 불교는 점점 어렵게 느껴질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한국인의 생각과 정신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문화를 불교적 코드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단순히 불교의 형성체와 교리를 설명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1부 '어려운 불교를 알기 쉽게'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사상, 불교미술은 물론 최근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참선과 명상, 다도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2부 '불교의 바다에 핀 이야기꽃'은 불교의 이야기, 즉 설화에 대한 설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설화의 형성과 전개 원리를 비롯해 정경사 연기설화와 가야 불교설화를 통해 본 상징체계 연구, 스리랑카 불교설화와 비교 등도 담겨 있다. 또한 '동양 최대, 세계 최고는 그란' '속담에 비친 불교의 모습' 등 불교를 접하며 느꼈던 자신의 감상을 옮겨 놓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새로운 책

■ <빛과 연꽃> (광덕 스님 지음, 김용덕 디자인, 종이거울, 6천원) = "혼자 있을 때 슬픔과 함께 하지 마라. 노여움과 함께 있지 마라. 오직 부처님과 함께 있으라. 진리의 자비광명 앞에서는 온갖 슬픔과 죄가 스스로 소멸된다." 광덕 스님의 법문과 짧은 메시지를 모아 하루에 한 구절씩 뜻을 되새겨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용덕 교수(한양대)의 연꽃 디자인이 곁들여져 사색의 깊이를 더해준다.



■ <착한아이 콤플렉스> (조안 루빈-뒤저 지음, 김선아 옮김, 산터, 1만원) =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기를 강요받는다. 이러한 억압 기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착한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이 상담심리사인 지은이의 주장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자문하는 어른들에게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비야사 발미키 지음, 주해신 옮김, 민족사, 각 1만3천원) = 1993년 번역 발간됐던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가 다시 출간됐다. 인도네시아, 네팔, 싱가포르 등 동남 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원에서는 두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조각품과 그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동남 아시아권 문화의 뿌리 깊은 신화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아문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임보리행문	산티데바	하안연꽃
2	방의지사	조용현	평민세계출판부
3	이장의	은정희	소명출판
4	홍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5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림
6	조용현의 사찰기행	조용현	이가서
7	넌 너는 누구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8	번뇌업고통	정승석	민족사
9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10	마음밭을 가꾸는 불자	보성 스님	효림

도서 안내: (02) 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해 깨쳐주는 이 시대의 아부 선사! 대원 문세현 선사(전강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일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02-522-0122, 011-785-0122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 10,000 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동협 601175-52-016521

주요수룩내용

- 공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형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 ▶ 생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 ▶ 꿈 해몽 방법 ▶ 따로 보는 궁합
-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동(명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일곱 가지 질문

- 1 이황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후천의 개혁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 7 극락세계는 진정교 서방세계에 있는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곱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시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재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시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법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